



주요국의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과 한국의 과제

SUMMAR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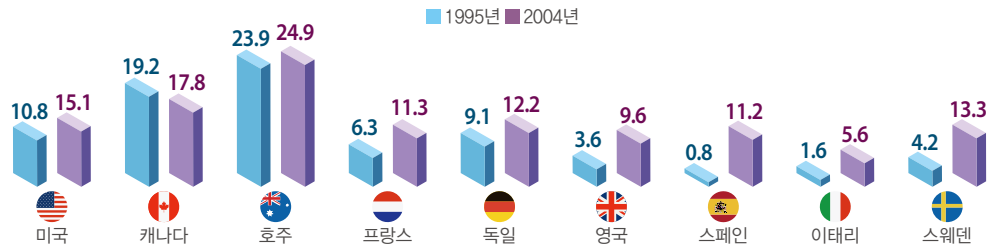
-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필요성**
 - 2000년대초 IT·의료·교육 분야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적극적 외국인력 개방 정책으로 타개한 유럽 선진국과 같이, 한국도 만성적 산업기술인력 부족현상에 대응하여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
- 기술패권시대, 주요국 외국 전문인력 유치 동향**
 - 2010년대 기술패권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, 중국, EU, 일본 등 주요국은 외국인 전문직 취업비자 요건 완화, 정주여건 개선 등 외국 전문인력 유입 여건 경쟁적 확충
- 한국 외국인력정책 문제점**
 - 1991년 산업연수생(현 고용허가제) 도입 이후 단순기능인력 중심의 외국인력정책을 30년 지속한 결과,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는 경쟁국 일본의 1/5 수준에 불과 - 2021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: 일본 22.8%, 한국 5.3% (일본 대비 17.5%p 낮음)
- 과제**
 - 해외 전문인력에 대한 명확한 타케팅 설정, 수준별 비자제도 우대방안 등 외국인 전문인력 국내 체류여건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

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제고 필요성

유럽 선진국, 전문인력 부족 해결 위해 외국인력 적극 개방

- 저출산, 고령화사회에 먼저 진입한 유럽 선진국은 2000년대초 국내 부족인력 대체, IT·의료·교육 분야 전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에 대한 적극적 개방정책 실시**
 - 프랑스, 영국 등 OECD 주요 회원국의 1995~2004년간 외국인 노동력 규모 2배 이상 증가

2000년대 초반 OECD 주요국의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근로자 비중 변화(%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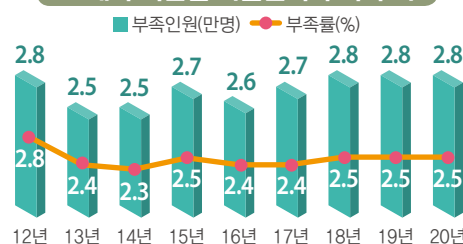
*자료: OECD, International Migration Outlook (2006)

저출산·고령화 심각한 한국, 외국 전문인력 활용제고 필요

- 한국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저출산·고령화에 의한 생산가능인구 감소,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12대 주력산업*, 5대 유망신산업** 등 산업기술인력 부족 현상에 대응하여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를 제고해야 할 시점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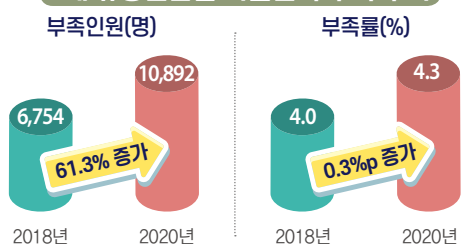
* 12대 주력산업(산업부 2013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, 제조업, 제조업 기반 서비스업): 기계, 디스플레이, 반도체, 바이오·헬스, 섬유, 자동차, 전자, 조선, 철강, 화학, SW, IT비즈니스
 ** 5대 유망신산업(산업부, 2020년): IoT가전, 디지털헬스케어, 미래형자동차, 스마트·친환경선박, 항공·드론

12대 주력산업 기술인력 부족 추이



*자료: 산업부,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

5대 유망신산업 기술인력 부족 추이



*자료: 산업부, 유망신산업 산업기술인력 전망, 2022년 3월

기술패권시대, 주요국 외국전문인력 유치정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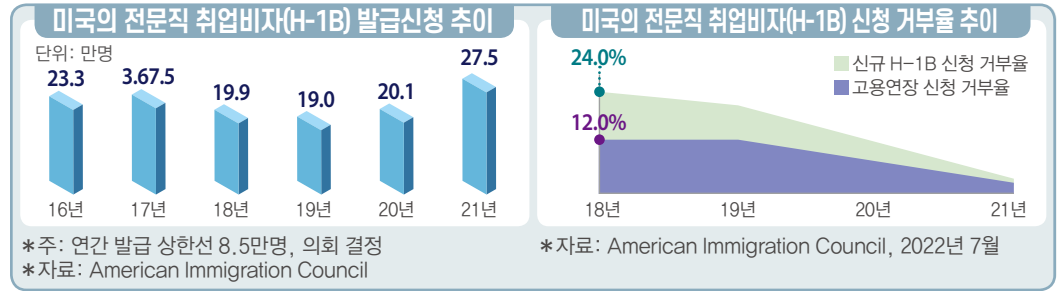


미국

고속권 외국인 인재에 대한 취업비자(H-1B) 발급요건 완화

◎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단한 외국인에 대한 신규 취업비자 발급 중단 조치를 해제하고 전문직 취업비자(H-1B) 발급요건*을 완화

❖ 2022년말까지 한시적 대면 인터뷰 면제 등



◎ 2022년 1월, 미국 대학 과학기술분야 졸업 이후 취업프로그램(OPT)에 22개 전공분야 추가* 및 교환·연수 J-1 비자의 취업기간을 3년으로 확대

*바이오, 에너지, 환경, 지질, 해양, 클라우드 컴퓨팅, 경제학, 재정분석, 데이터 분석 등



중국

과기강국과 혁신형 국가 건설 목표 아래, 외국 고급인재에 대한 유치정책 강화

◎ 2019년, [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] 통해 전략핵심분야 인재* 유치정책 강화

*중국이 취약한 차세대정보통신, 제조업, 첨단신소재 등 전략분야 핵심기술 보유 해외고급전문가

◎ 2020년, 해외 고급인재 영주권 취득기준 완화 [외국인영구거주관리조례] 제정

*첨단분야 외국인 전문인력의 경우, 중국에 거주하지 않아도 영주권 신청 가능

*박사 학력, 세계 유명대학 졸업 인재는 중국내 만 3년 이상 근무(실거주 1년 이상)시 영주권 신청 가능

중국의 해외인재 유치 전략

구분	추진시기	주요 내용
백인계획	1994년-현재	100여명 우수 해외 연구 리더의 중국 유치·양성
장강학자장려계획	1998년-현재	정부 지정 중점학과에 우수한 해외 학자 유치
천인계획	2008년-현재	해외 유명 대학 교수 또는 기업체 전문가 유치

*자료: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(20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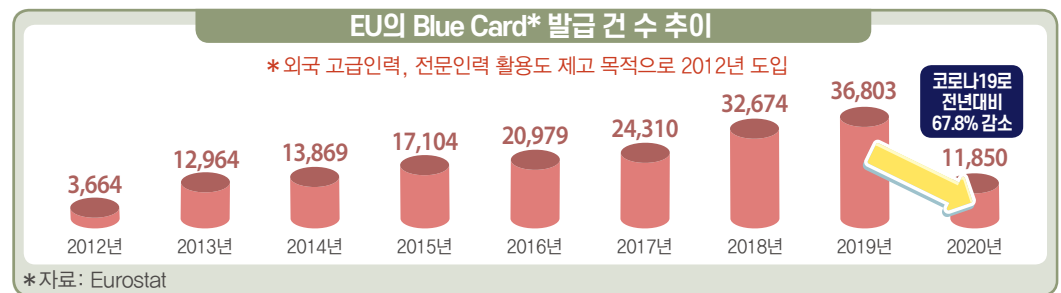


EU

외국 고급인력, 전문인력 활용 Blue Card 제도 시행

◎ 2016년, 외국 전문인력 활용 목적 블루카드(EU Blue Card) 발급기준* 완화

*기존 EU회원국 평균임금의 1.5배 이상이었던 고용계약서 상의 최소 연봉 기준을 낮추고, 1년 이상이었던 고용계약기간 기준을 6개월로 단축



일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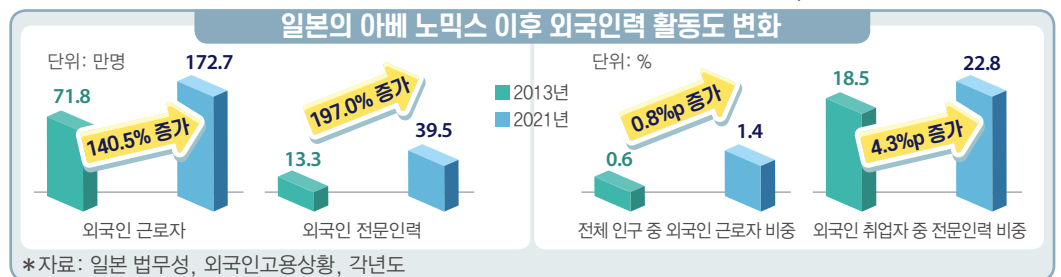
외국 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 강화 통해 외국인력 활용도 큰 폭 개선

◎ 2013년부터 아베노믹스 하에 외국 인재 유치정책 실행 이후 관련 제도 강화

❖ 고급인재 인정요건 완화(2013년 12월), 일본 거주 외국인 연구·경영자에 대한 영주권 취득요건 완화 [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도입(2017년 1월, 종전 5년 → 1년)]

◎ 외국 인재 유치정책의 지속적 강화를 통해 외국 전문인력 활용도 큰 폭 개선

*외국인 취업자 중 전문인력 비중: 2012년 18.5% → 2021년 22.8% (4.3%p 증가)



대만

과학기술·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정주여건 개선

◎ 2021년 해외 과학기술·엔지니어링 고급인재에 대한 대만 정주여건 개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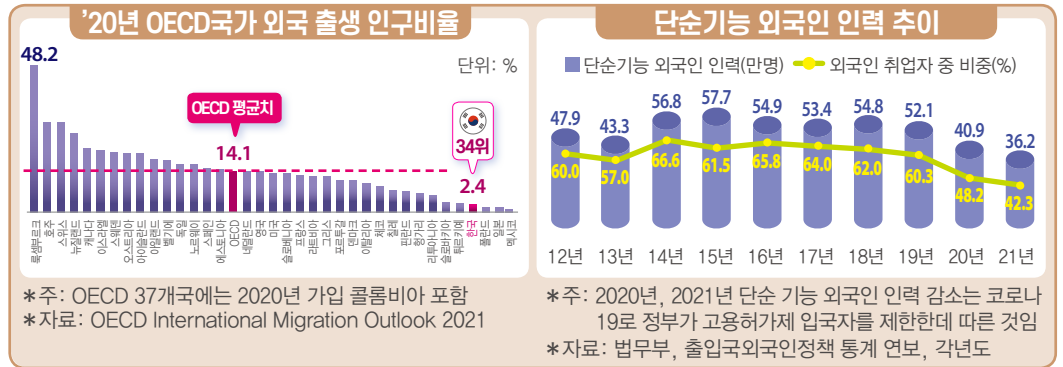
❖ 해외 과학기술·엔지니어링 고급인재 유치 위해 외국인 전문가에 대해 임금소득이 300만 대만 달러 이상(원화 1억 3천만원)인 경우 초과분의 절반은 과세범위 제외 등 큰 폭의 혜택을 제공하고 비자 등 거주 관련규정 완화



단순 기능인력 중심
외국인력 활용,
외국 전문인력 활용도
저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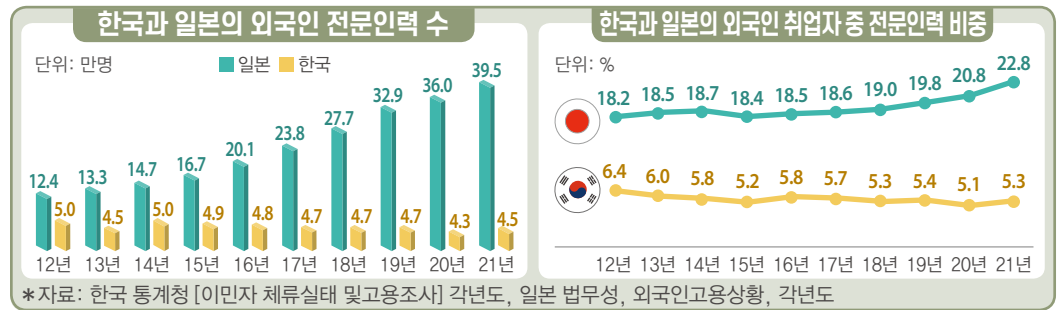
◎ 폐쇄적 영주권 제도와 국적제도로 한국 노동시장 개방성은 OECD 최저 수준

- ❖ 2020년 외국 출생 인구비율 OECD 37개국(2020년 가입 콜롬비아 포함) 중 34위: OECD 평균 14.1%, 한국 2.4%,
- ❖ 단순기능인력 위주의 외국인력정책으로 외국인 취업자 중 단순인력 비중이 최근까지 60% 상회



◎ 경쟁국 일본과 대비하여 외국인 전문인력 활용도 저조

- ❖ 2021년 외국인 전문인력 수: 일본 39.5만명, 한국 4.5만명 (일본 대비 11.4% 수준)
- ❖ 2021년 외국인 전문인력 비중: 일본 22.8%, 한국 5.3% (일본 대비 17.5%p 낮음)



외국 전문인력
비자 발급 까다로움,
영주권 취득도 엄격

◎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비자(특정활동 E-7 비자, 기술창업비자 D-8-4비자) 발급요건·절차가 까다롭고*, 외국인의 영주권 취득 또한 국적 취득만큼이나 엄격한 실정

- * 취업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도 전년도 국민총소득(GNI)의 80% 수준 임금(월 262만 원) 지급을 규정하고 있고, 신청에서 발급까지 평균 2~3개월 소요. 2013~2021년 기술창업비자 발급건 수 98건에 그침. 국내 외국인 창업자 수는 2022년 11월 현재 112명으로 전체 등록 외국인 수(114만 명의 0.01% 불과

주요국(미국, 중국, 일본, 한국)의 외국전문인력 유치정책 비교				
	미국 🇺🇸	중국 🇨🇳	일본 🇯🇵	한국 🇰🇷
정책명, 실시시기	*STEM program	*고급외국인전문가유치계획 (2004년 8월)	*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제도 (2013년 12월)	*해외 인재의 유입 활성화 (2021년 2월)
핵심 대상	*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Mathematics 분야 미국 학위 취득 외국인	*중국 경제발전에 필요한 과학자, 기술인력, 국제 기업가, 전문 특수인재 등	*일본 공공·사설기관과 계약을 통해 추진하는 고도 학술연구활동·전문기술 활동 등 관련 인사	*국내 핵심인력 부족 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※ 2021년부터 실태조사 중
영주권 취득 체류기준	*해당 없음 *단, 학위 취득 후 기업연수 프로그램(OPT)을 신청시 29개월 체류 허용	*3년 이상 근무(실가주 1년 이상)시 영주권 신청 가능	*고도인재포인트 70점 이상 취득시 3년, 80점이 넘는 우수인재 1년 (2017년)	*3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고 전문직종 근무한 경우
정주요건 개선	*해당 없음	*배우자 및 18세 미만 자녀 영주권 신청 가능	*배우자 취업, 일정요건하에 부모 동행 허가, 가사도우미 허가 등 지원	*없음 ※배우자 및 자녀 취업 허용 확대 등 검토단계

◎ 미흡하지만 2021년부터 해외 인재 국내유입 활성화 정책이 실시 중이나 효과는 아직 미지수

- ❖ 최대 10년간 연 6억원 지원 해외고급과학자초빙사업(브레인풀 플러스) 확대. 해외 석학에 대한 전자비자 절차 적용 등 비자제도 개선, Linko 센터(해외우수연구자 지원) 설치 등

쟁점과 체크포인트

- ✔ 해외 고급인력에 대한 국내 수요 실태조사를 통한 실행가능한 외국 전문인력 활용정책 수립
- ✔ 일본의 [고도외국인재 그린카드] 제도와 같이 외국인 전문인력에 대한 국내 체류여건 개선
* 일본의 해외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한 파격적 인재 포인트 제도 도입 및 영주권 혜택 부여 마련. 가족 동반 국내 거주 전문인력 혜택 확대, 언어·교육·생활 등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등
- ✔ 외국인 전문인력 유치풀(pool) 다양화



글로벌 싱크뱅크 FOCUS

MIZUHO

China continues its "strong power" path

강국 노선을 이어가는 중국: 3기 시진핑 지도부가 직면하는 과제

Naoki Tsukioka
2022. 11. 02

<https://www.mizuho-rt.co.jp/publication/report/research/insight/2022/insight-as221102.html>

SUMMARY

2022년 10월 16일~22일 당 대회를 거쳐 발족한 시진핑 3기 지도부는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완성을 목표로 기존 강국 노선을 지속할 전망

중국 공산당 중장기 목표

향후 5년 (~2027년)	2035년	21세기 중반
사회주의 현대화 국가의 전면적 건설이 시작되는 중요한 시기	사회주의 현대화의 기본적 실현	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의 건설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과학기술 자립자강능력 향상 국가 통치체제·통치능력 현대화,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충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체제 개선 중화민족 응집력과 중화문화의 영향력 증강 중국 인민 해방군 창설 100주년 분투 목표 실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당 GDP 중등 선진국 수준에 도달 고수준 과학기술 자립자강의 실현에 의한 혁신국가 동참 국가통치체제, 통치능력의 현대화 실현과 법치 국가·정부·사회 건설 중간 소득층 비율의 향상과 기본 공공 서비스 균등화, [공동부유]의 실질적 진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국력과 국제적 영향력에서 세계 리더국가로 도약

시진핑 3기 지도부의 당면 경제과제는 제로 코로나로 장기화된 소비 침체 회복

◆중국 경제는 상하이 락다운 이후 회복력이 부족하고, 2023년 V자 회복은 어려울 전망



Building Back More Inclusive Labour Markets

보다 포용적 노동시장으로의 회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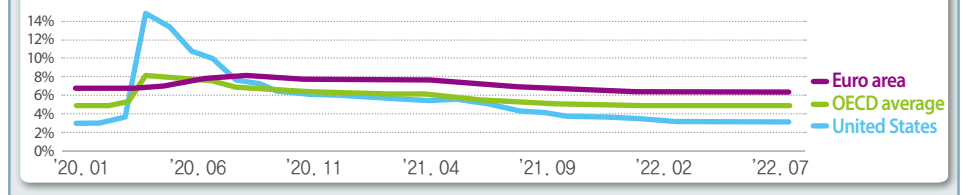
OECD Employment Outlook
2022. 09. 09

SUMMARY

OECD 국가의 노동시장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

- ◆고용률: 2021년말 위기 이전 수준 회복, 위기 이전보다 1.3% 높은 수준
- ◆실업률: 2022년초 모든 국가에서 위기 이전 수준에 가깝게 회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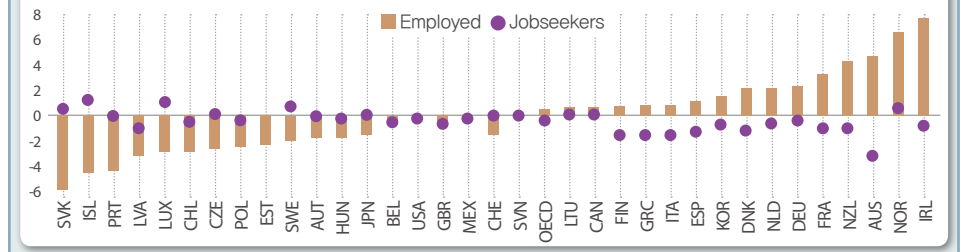
Unemployment below pre-COVID levels



OECD는 청년(15~24세)의 경우 다른 연령대 고용률보다 회복 수준이 낮고, 일선 일자리(frontline) 청년의 저임금과 인력 부족 문제 등은 개선되어야 한다고 평가

- ◆2019년 1분기 대비 2022년 1분기 OECD 15~24세 청년(youth) 고용률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0.1%p 높아졌지만,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는 평균 2.2%p 하락.
- ◆청년고용률이 위기 이전 수준보다 낮은 국가는 주로 저임금 서비스 부문과 제조·건설 부문의 고용 감소에 기인

'19.1분기 대비 '22.1분기 청년(15~24세) 고용률 변화(%)



https://www.oecd-ilibrary.org/employment/oecd-employment-outlook-2022_1bb305a6-en